

# ‘12주된 태아도 행동표현’ 확인

## ‘낙태허용 법적시기’ 논란

글\_함혜리 서울신문 파리특파원 lotus@seoul.co.kr



23주 된 자궁 속 태아의 모습. 3D-4D 기술로 촬영된 것으로 표정이 담긴 얼굴 모양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갓난 아기처럼 하품도 하는 태아의 모습

**최** 근 영국에서 3차원 입체 동영상으로 촬영된 자궁 속 태아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런던 크리에이트 헬스클리닉의 스튜어트 캠벨 교수가 촬영해 최근 인터넷 사이트(www.createhealth.org)에 올린 자궁 속 태아의 입체 동영상이다.

캠벨 교수가 실시간으로 촬영한 이 동영상은 자궁 속 태아의 발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 ‘3D-4D 기술’로 태아 동영상 촬영

캠벨 교수가 사용한 ‘3D-4D 기술’은 초음파 스캐너로 촬영한 3차원 사진과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것으로 2001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처럼 긴 기간에 걸쳐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D 촬영은 기존의 2D에 비해 훨씬 더 상세하게 태아 신체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얼굴,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생김새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으며, 축적된 디지털 영상을 동영상 애니메이션

으로 전환하면 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이 동영상에 따르면 자궁 속 태아는 발육 초기단계인 임신 9주만에 팔을 뻗고 다리를 차는 동작을 하며 12주부터는 자궁 속에서 마치 트램플린을 하듯 이리저리 움직이고 걸음마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고 있다.

임신 14~15주 즈음에는 손가락을 빨고,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한다.

특히, 태아가 자궁 속에서 눈을 뜨는 시기는 임신 18주째라는 것이 이번 동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의사들은 지금까지 26주까지는 눈이 떠지지 않는다고 믿어 왔었다. 또 태아는 22주에 미소를 짓고 26주가 되면 얼굴에 주름을 잡거나 눈살을 찡그리고, 때로는 웃음을 짓는 등 인간의 감정반응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동영상 촬영결과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은 이처럼 자궁 속 태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이는 낙태 허용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



3차원 초음파로 촬영된 태아의 모습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은 생리가 멈춘 시기부터 24번째 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 2명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한다.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이 14주까지, 이탈리아는 90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자발적인 낙태건수 17만5천 건 가운데 1만3천 건이 14주 이후에 낙태했다.

캠벨 교수는 동영상을 처음 공개한 지난 6월 29일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22주된 태아가 미소를 짓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엄마의 자궁 속)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태아의 경우 24주면 이미 복잡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천진한 아기처럼 행동하고 미소를 띠는 22주에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낙태 지지론자들은 “일련의 동영상 때문에 낙태를 결정한 임신

부들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낙태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최대의 낙태수술 시술 기관인 ‘마리스톱스 인터내셔널’의 홍보 책임자인 토니 케리지는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면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낙태를 결심한 여성들이 마음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행 24주, 윤리적문제 야기”

낙태 반대운동단체인 ‘프로라이프(ProLife)’의 조세핀 켈타발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나 태아에도 인간성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켈타발 대변인은 “그러나 이같은 동영상 기술을 통해 태아가 지닌 아주 작은 결점이나 장애를 발견하고 낙태하려 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7월 7일 의회 답변을 통해 법정 허용시기에 대해 다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블레어 총리는 법 개정 가능성이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시대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낙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자유 투표에 위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966년 논란 끝에 낙태법을 제정한 스털 경은 앞서 ‘스코틀랜드 온 선데이’ 지와의 인터뷰에서 낙태의 법적 허용시기를 24주에서 12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스코틀랜드 의회의장을 지낸 바 있는 스털경은 “의학의 진보로 우리는 태아가 지닌 문제들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임신 초기에 확인할 수 있다”면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는 순전히 임신부가 선택할 문제이며, 법적으로는 12주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낙태법이 제정될 당시 낙태 허용시기는 28주였으나 1990년 24주로 앞당겨졌으며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㉔



글쓴이는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 제2대학 프랑스 언론정보 연구소(IFP)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